세종시 문화체험관 건립에 개신교계 '딴죽'

세종기독교연합회 등 무효소송 · 막무가내식 시위
세종시의회 산건위, 예산 20억원 전액 삭감 결정

조계종이 세종시에 건립 추진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 심사서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산건위 결정에 대해 기독교계 반발에 의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일 제46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한 시비 20억 원을 격론 끝에 삭감했다. 하지만 조계종 측은 예산 삭감 사유를 전해 듣지 못한 상황에서 기독교계의 계속된 시위에 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흔들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세종기독교연합회는 11월 27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상대로 '종교용지사업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게 무효라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들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세종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이며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막무가내식으로 반대하고 있다.

개신교계 억지주장의 실상

개신교계는 922㎡(279평)이던 건립 부지가 몇 차례 걸쳐 1만6000㎡(4840평)으로 확대된 점, 입지의 부적절성, 과도한 지자체 지원 등을 이유로 체험관 건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와 조계종에 따르면 이는 맞지 않는 논리다.

먼저 개신교계가 주장하는 922㎡의 부지는 과거 조계종 포교당인 석불사가 있던 땅이다. 조계종 재무부에 따르면 석불사는 2009년경 인근 토지개발로 인해 종단에 토지처분승인을 요청했고, 매수협의우선권을 종단에 귀속시켰다. 결국 이번 논란과는 별개의 사안인 셈이다.

이후 2012년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신도시 포교에 의지를 보이며, 세종시 종교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행복청은 문화관광자원 유치를 위해 조계종에 9917㎡(3000평)에 달하는 현재 부지를 소개했다. 조계종은 이보다 더 넓은 부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부지를 매입해 분납금을 내던 중 천태종과 (재)대전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이 인근에 각각 5000여 평의 부지를 낙찰 받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조계종은 이를 이유로 부지 확대를 요청했고, 종교형평성에 맞춰 최종적으로 1만6000㎡의 부지가 확정됐다.

조계종, 적법 절차 거쳤지만
예산 삭감 사유 알 수 없어
근거 없는 개신교 주장 지속

내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개신교 '눈치보기' 의혹도
시의회 예결위 결과 관건

입지의 부적절성 역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가 공론화되면서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조계종의 부지 매입은 이보다 훨씬 오래 전에 이뤄진 데다 국회 분원 설치 가능부지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종교관련 문화시설 건립 예산지원 현황

시설명	예산편성비율			
	국비	시 · 도비	자부담	총사업비
증도 기독교체험관	28.5억(30%)	66.5억(70%)		95억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24.0억(30%)	28.0억(35%)	28.0억(35%)	80억
성모순례성지 · 평화문화나눔센터	53.4억(30%)	62.3억(35%)	62.3억(35%)	178억
내포해미 세계청소년문화센터	46.2억(30%)	53.9억(35%)	53.9억(35%)	154억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전당	84.0억(30%)	98.0억(35%)	98.0억(35%)	280억
충청유교문화원	84.0억(30%)	196.0억(70%)		280억
천태종 전통문화유산전승센터	100.0억(30%)		240.0억(70%)	340억
서울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	55.2억(30%)	55.2억(30%)	73.6억(40%)	184억

과도한 지자체 지원에 대한 주장은 전국에 건립되는 각 종교계 문화시설 예산지원 현황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자부담 40%(72억원)와 국비 · 시도비 각 30%(54억원)로 건립된다.

현재 2018년 이후 완공예정인 종교관련 문화시설은 △증도 기독교체험관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내포해미 세계청소년문화센터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성불사 전통문화체험관 △충청유교문화원 △천태종 전통문화유산전승센터 △서울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등이 있지만 이 중 자부담이 40% 이상인 사업은 천태종(70%)과 원불교뿐(40%)이다. 대부분 35%의 자부담이 책정돼 있으며, 증도 기독교체험관과 충청유교문화원은 자부담은 없지만 각각 신안군과 충청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타종교 사례와 비교할 때 시 지원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건립 이후 모든 시설 운영은 조계종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며, 이용객 전체에게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면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여가 · 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외 관광객 증대와 문화예술단체 이용편의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불교계 "억지주장 좌시 않겠다"

조계종은 포항시의회 산건위의 예산 삭감 통보를 받고, 7일 세종시를 전격 방문했다. 총무부장 정우 스님과 문화부장 정현 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등은 이날 이춘희 시장과 고준일 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서 정우 스님은 "종교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장도 "예결특위 과정이 남은 만큼 의원들에게 충분히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불교계는 허위사실을 유표하는 일부 개신교 단체와 언론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세종시불교사암연합회와 세종시불교신행단체연합회는 같은 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 편향적 사업이 아닌 세종특별시민에게 유익한 시설임에도 한 기독교 단체의 시위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은 종교적, 정치적 유불리 이해관계에 의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종단차원의 법적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3일까지 예결위원회를 통해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예산에 대해 재논의하고,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윤호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등 종교지도자들이 차담을 나누는 모습.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文 대통령 "평화적 촛불혁명, 종교계 감사"

12월 6일, 종교지도자들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 평화적 촛불혁명의 공을 종교계에 돌렸다.

문 대통령은 12월 6일 청와대 인왕실서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김영근 성균관 관장,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등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극심한 정치적 혼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이 저력을 보여주셔서 명예로운 촛불혁명으로 위기를 이겨냈다"며 "그 많은 인원들이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종교의 힘이 컸다고 생각한다. 종교계 지도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한편 청와대는 채식을 하는 불교를 배려해 오찬을 두 가지로 준비했다. 통영 굴전대신 애호박전이, 등심구이 대신 콩불고기가 제공됐다. **윤호섭 기자**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⑳ 후회스러운 선물

美文보다 감동적인 생명사상

법정 스님께서는 강원도 오두막에서 서울에 오시면 꼭 전화를 주셨다. 특별한 용무가 없을 때도 부르셨다. 길상사 행지실로 올라가 보면 보통 서너 사람은 나처럼 부름을 받아 온 이들이 먼저 와 있기도 했다. 그날 나는 스님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했다.

"요즘도 스님 책을 찾는 독자가 꾸준합니다. 다른 책과 달리 생명력이 있습니다."

"초기에 냈던 책들을 보면 문장이 거칠어요. '것이다'를 남발해 거칠어요. 때가 되면 수정해야겠어요."

단정적이고 설명적인 문장이 눈에 거슬린다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내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른 데 있었다.

"스님의 글 속에 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상이 녹아 있어서 독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것이지 아름다운 문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명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를 넘어선 모든 생명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자는 사상입니다."

나는 스님의 산문집을 열 권 정도 만들면서 느낀 바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스님의 책을 내면 대부분 10여만 권이 나갔다.



일러스트 · 정윤경

샘터사에서 발간하는 책의 판매부수에 3분의1 정도였다. 샘터사를 세상에 알리고 떠받드는 기둥 중에 하나인 셈이었다. 물론 몇 만 권에 그친 책도 있었다. 책 내용은 스님의 다른 산문집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서점을 관리하는 직원은 한자제목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샘터지에 연재하는 〈산방한담〉이라는 꼭지제목이었으므로 스님의 동의 없이 바꿀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날 내가 스님께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책 제목 같은 궁금증이 아니었다. 스님의 산문집은 왜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독자들은 대부분 스님을 탁월한 에세이스트라고 평했다. 지금도 실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님께서는 어느 명문대학교의 교양국어 책에 스님의 수필 '쥐 이야기'를 넣고 싶다는 제안을 전화로 받으신 적이 있다. 마침 스님의 옆자리에 내가 있었으므로 통화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이다. 전화한 대학교수는 스님의 개성적인 문체는 수필로써 귀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문장만으로 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왔을까?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차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언컨대 스님은 수행자이지 수필가는 아니었다. 하루에 글 쓰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혼자 예불하고, 채마밭을 가꾸고, 좌선하고, 차를 마시고, 선어록 같은 책을 읽고, 해제 때는 만행하는 등 보통스님의 일상을 조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길상사 행지실에서 머뭇거리다가 스님께 "스님, 기회가 되면 스님의 사상적인 내용만 뽑아서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스님께서는 미소만 지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는데 스님께서 갑자기 입적하시는 바람에 그 일은 영원히 유예돼 버렸다.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